

신기성 욕구수준에 따른 해외여행동기 차이에 관한 연구

Study on Level of Novelty Seeking Need and
Oversea Travel Motivators.

박 신 자*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이론적 배경	Abstract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연구내용 및 분석	

I. 서 론

영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 그리고 실제의 인물들이 사랑과 낭만을 여행을 통해 추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현대의 급박한 생활 리듬 속에서 사람들이 일과 휴식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가여행을 하는 것이 그리 새로운 양상이 아니다. 이것은 여행이 이제 더 이상 특정 또는 소수의 사람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또한 앞으로 여행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며 동시에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하겠다.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는 동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연구에 있어서 여행동기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행동기가 여행행동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요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

소로서 특정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시작하도록 하는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볼 때, 여행의 사결정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행 동기는 특정 목표를 향해서 여행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며 또한 행동을 지속시키고 에너지를 투입하는 내적 과정으로,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왜 여행을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여행을 떠난다. Gee등¹⁾은 오늘날 사람들을 쾌여행으로 밀어 넣는 요인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요인은 문화적 경험, 여가, 탈출, 개인적 가치, 사회적 접촉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라고 말한다. 여가활동이나 여행은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이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게 된 카타르시스, 독립, 지식, 유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등과 관련된 욕구²⁾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되어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행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행의 이유를 설명하는 단편적인 동기의 목록표(Lists)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둔 것들로 여행행동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관광 결정을 하게 만드는 동기나 또는 관광결정을 하는데 누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실제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³⁾ '여행자들이 그의 여행동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나로서도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는 보다 깊은 요구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⁴⁾ '사람들이 왜 여행을 하는지 각자 자신의 여행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 대답하는 여행 이유에는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⁵⁾등의 지적에서 보듯이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여행동기를 이해함에 있어 만족할만한 연구가 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행이 1990년대 이후에 비교적 활발한 실증적 연구들⁶⁾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조사. 연구들이 단순한 통계처리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99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객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해외관광여행의 주된 이유 중 첫 번째가 '평소에

1) Chucky. Gee, James C. Makens and Dexter J. L. Choy (1997) , The Travel Industry(Third Edition), Thomson Publishing Inc

2) Kalat, J, W.(1999). Biological Psychology. N.C.S. Raleigh.

3) Prigge, William R.(1970). Environment and the Accomodation Industry, The Travel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Conference, Salt Lake City: Travel Research Association.

4) Lundberg, Donald E.(1976), The Tourist Business, third edition, Boston: CBI Publishing Company

5) Smith, V.(1999). "Woman the Taste-makers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6(2)

6) Fodness, D.(1994).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551-581. Uysal M. & Hagman(1993). Motivation of pleasure travel and tourism. In M. Khan, Olsen, M. & T. Var, Encyclopedia of Hospitality and Tourism(pp. 798-810). N.Y.:VNR. Kalat, J, W.(1999). Biological Psychology. N.C.S. Raleigh.

방문하고 싶었던 특정 도시나 지방이 있어서(50.9%)'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 방문하고 싶었던 특정도시나 지방이 없어서일까? 라는 질문은 이러한 통계들의 한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S. McCabe는 관광 연구에 있어서 동기는 “목에 걸린 가시(thorn in the side)”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동기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동시에 어려움을 말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은 여가, 관광동기를 분류 정리 하였으나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로 일치된 이론 정립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동기 연구에 사용된 조작적 방법(operational method)은 매우 복잡하여, 심지어 영향력이 없거나 어떤 행동을 예견하지도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예를 들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동기를 요구(needs)로,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태도(attitudes)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두 접근은 모두 본질적으로 동기 뒤의 기본 개념으로 추동(drives)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 둘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다.

동기는 정서적 충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인지적 상황 변수와도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관광을 하는 동안 개인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욕구나 동기의 변화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동기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무엇보다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행동기에 대한 연구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기에는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적 접근, 인지적 접근 그리고 인본주의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같은 행동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리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행동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볼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과 미지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또한 탐색과 모험을 즐긴다. 인간의 미지의 세상에 대한 동경과 탐색욕구는 유아기 때부터 이미 존재하며 대부분의 시간 잠재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욕구 중의 하나이다. 발달심리학자인 Piaget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12 - 18개월만 되면 벌써 친숙한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구분하며 특히 새로운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다. Fantz(7)는 생후 6개월된 유아조차도 같은 자극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주의가 감소되며, 이때 새로운 자극을 제시하면 유아는 그 자극을 더 오래 응시하며 즐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 경향은 어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인간에게 해당되는 특성이다. 새롭고 변화를 주는 자극은 인간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유인물이

7) Fantz, R.L..(1961). the Origin of Form Perception, Scientific American.

될 수 있으며, 여행행동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것, 친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변화는 실상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심리는 여러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 설명으로는 인간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생존과도 관련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오랜 시간 변화가 없는 상황에 놓이면 지각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일체의 자극이 박탈된 상태에 일주일 정도 노출되면 환각, 환청 현상이 나타나며 정상적인 지각기능에 문제가 일어나고 더욱더 나아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우리의 의식세계보다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수준에서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관광현상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요구충족보다 사회심리적인 요구로서 새로운 자극이나 정보지향적 행동이 중요한 행동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관광행동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람은 관광하는 동물이며, 여행은 임의로 선택 가능한 하나의 생활 방식이다.⁸⁾ 그런데 사람들은 왜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 중 굳이 여행을 선택하는가? 해외여행을 통해서 여행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관광행동을 유발시키는 여행동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중요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기성 욕구수준에 따른 해외여행에 대한 태도와 신기성 욕구수준에 따른 해외 여행동기의 차이를 분석하여 해외관광행동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동기와 관광행동

동기부여이론의 근원으로 Freud, Hull 그리고 Lewin에 초점을 두어 정신분석이론, 자극-반응이론 그리고 인지심리학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분류는 실제로 크게 두 그룹, 즉 행동주의이론을 포함한 homeostatic이론과 인지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초기의 동기에 대한 연구자들에서는 행동주의적 모델이 영향력 있게 다루어졌으나 Berlyne과 Deci의 연구 결과에 힘입어 점차 동기부여에 있어서 인지과정이 강조되었다. 행동주의적 모델에

8) 손대현(1983),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마케팅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는 대체로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행동의 목적 내용을 의식상에서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개념을 활용하여 여행행동을 설명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행동의 중요한 원동력으로서의 동기에 대한 견해를 체계적으로 밝힌 사람은 Murray⁹⁾로 그는 동기를 일련의 욕구 체계(a set of needs)로 체제화 하였으며 후에 Maslow¹⁰⁾에 의하여 이 이론은 발전·소개되었다. Maslow의 이론은 5단계의 논리적 진행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욕구 위계는 음식, 안전과 같은 일련의 낮은 욕구 단계에서부터 자아실현이라는 절정의 높은 단계, 즉 자기 성취,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깨닫고 발휘하는 욕구단계로 이어진다. Ryan¹¹⁾은 Maslow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정상이 아닌 행동에 관심을 두던 심리학이 Maslow에 의해 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특히 심리적 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된 것을 Maslow의 공헌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Maslow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그의 욕구 위계라는 것은 본래 치료(clinic)라는 맥락 속에서 연구된 것이며, Maslow는 그의 이론을 작업 동기(work motivation)에 응용시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었다.¹²⁾ 다시 말해서 Maslow가 설명하는 욕구들은 본질적으로 관광동기와는 너무나도 상관 없는 욕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slow의 이론이 자주 소개되는 것은 그의 이론이 아마도 심리학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쉽고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과 오늘날 소비자 연구, 마케팅, 그리고 여가와 관광에 관련된 거의 모든 교재에서 그의 이론이 두루 쓰이기 때문인 듯하다.

여가나 관광 분야에 관련된 동기이론들은 대부분 경험적 지지가 부족하다. 그나마 유일하게 관광 동기 분석을 위한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Pearce와 Caltabino의 관광객의 경험으로부터 여행동기를 추론해 낸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보다 먼저 Plog¹³⁾가 관광지의 인기가 높다가 낮아지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방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목적지별 선호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한 것이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여행동기를 세분화하고 미국의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여행자 유형을 내향적 성격에서 외향적 성격까지의 연속체

9)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10) Maslow, A. H.(1970). *Motivation & Personality*, NY.Harper & Row.

11) Ryan, R. M.(1977).*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53(1)

12) Wright, P.(1996). North American ecotourism markets: motivations, preferences, and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2): 16-21.

13) Plog(1972). "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a Paper Presented to the Southern California Chapter of the Travel Research

(Continuum)로 분류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Plog의 이론은 일반적인 동기나 욕구 분류에 매우 유용하나 여행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은 분류 이상의 매우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 예로 각 각의 여행자는 각기 다른 여행의 동기를 갖고 있으나 기존의 모델들은 여행자의 여행목적지 선호 경향성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있지 않다.¹⁴⁾

관광행동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 중에는 한 개인이 지니는 동기 차원의 상대성을 탐색하여 관광자의 유형을 나누는데 관심을 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여행동기와 욕구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관광객의 환경과 방문지의 환경과의 비교를 통해 잠재 여행자들의 여행과정에서 나타날 욕구를 알아보는 방법¹⁵⁾과 실제 목적지에서 여행행동을 파악하여 욕구를 알아보는 방법¹⁶⁾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관광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관광동기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 역시 단순한 동기들의 나열 등 단편적인 연구라는 지적을 받았다.

관광산업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회 심리적 요인(push factors)보다 환경적, 문화적 요인(pull factors)을 강조하던 시기에 Crompton¹⁷⁾은 그의 경험적 분석에서 많은 여행자들이 일차적으로 사회적 접촉, 유대관계 촉진 등 사회 심리적 편익을 추구한다고 보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동기를 push-pull요인으로 이해하려는 그의 입장에서 push요인이란 개인으로 하여금 여행을 하려는 충동을 일으킴으로써 행동을 하도록 하는 사회-심리적 동인으로 관광동기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에, pull요인이란 이미 관광을 하기로 결정을 한 잠재적인 관광자를 특정 목표물로 끌어당기는 관광 매력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push요인은 개인 또는 개개인 내부의 세계와, 그리고 pull요인은 목적지의 자극과 항상 관련되어있다. Dann¹⁸⁾은 이러한 동기요인과 같은 맥락으로 'anomie'와 'ego-enhancement'를 설명한다.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아 여가·관광 동기 이론에 있어서 주 공헌으로 최적의 각성상태와 관련시켜 설명한 Deci의 본질적 동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Iso-Ahola¹⁹⁾의 연구

14) Cooper, P. D. and J.R. Thompson, "Additional Evidence on the Limited Size of Evoked and Inept Sets of Travel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7.(Winter, 1979).

15) Smith, V.(1999). "Woman the Taste-makers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6(2)

16) Dann, G.(1977)."Anomie, Ego-Enhancement &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4.H

17) Crompton, J. L. and Gitelson, R. J.(1984). "Insights into the Repeat Vacation Phenomen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 II.

18) Dann, Ibid.

19) Iso-Ahola, S. E.(1982). *Towards a Social Psychology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

를 들 수 있다. Iso-Ahola는 여행을 변화에 대한 욕구와 안정에 대한 욕구의 모순이 최적 각성 추구(optmal arousal seeking)의 틀 내에서 변증법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즉, 각 개인은 여러 수준의 자극을 추구함에 있어서 과도 자극과 지나친 자극 부족 양쪽 모두를 피하려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Crompton과 McKey²⁰⁾는 push-pull 개념화는 환경과 자극 수준에 근거하여 설명한 Iso-Ahola의 회피 - 추구(escaping-seeking)이분법적 이론과의 통합을 통해서 재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있다.

Dun Ross와 Iso-Ahola²¹⁾ 동기와 만족요인과의 관계 탐색을 통해 추구(seeking)와 회피(escaping)차원은 중요한 동기와 만족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둘 중 추구요인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Moore는 심리학 쪽의 연구들이 자극을 목표와 결부시켜 외부적인 사건을 유인동기로 해석함을 우려한다. 즉, '목표 대상'과 '동기(즉 욕구)'간의 개념적 구분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또한 그들의 주장이 이론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2. 신기성 욕구와 여행동기

1983년 손대현이 국제 관광객의 유형과 성격을 설명하면서 Novelty를 신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Novelty가 주로 호기심 동인(curiosity drive), 탐구적 동인(exploratory drive),등의 용어로 쓰이며 신기성동기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이러한 초기의 연구들은 요구나 동기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설명은 비교적 잘 해주고 있으나 여러 동기들을 어떻게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지를 잘 규명해주지 못하였다. 그 후 관광동기척도들이 개발되고 이를 사용하여 관광객들의 관광체험을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Novelty 동기가 관광행동, 특히 휴가여행 선택 행동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면서 신기성에 대한 연구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는데, 이 때 신기성 동기와 관련된 연구²²⁾들은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관광의 중요한 동기로 강조하였다.

Novelty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현상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정도 즉, 하나의 자극이 어느 정도의 신기성을 갖는지는 과거와 현재라는 현실 속에서 한 개인이 두 자극의 차이를

20) L. S. McKay,(1977).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 of Tourism Research 24

21) Iso-Ahola, S. E.(1984).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Leisure and Resultant Implication for Leisure Counseling, "Leisure Counseling: Concepts and Appllication, E.

22) Bello, D. C. & M. J. Ezzell(1985). the Role of Novelty in the Pleasure Travel Experience" the Journal of Travel Research, Summer.

얼마나 다르게 그리고 크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다. Novelty는 친숙함이나 반복된 자극으로부터 느끼는 지루함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원천²³⁾으로 이럴 때 신기성동기는 여행이나 관광을 통해 되풀이되는 일상생활과 변화없는 환경으로 인한 권태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로 설명된다. 그 밖에도 Novelty 욕구를 가정 등 일상생활권에서 관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태도적·행동적 규제로부터 해방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시도²⁴⁾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탈의 욕구는 사람들을 여행하게끔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위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Iso-Ahola도 인간관계에 둘러쌓인 환경에서 탈피하려는 욕구가 인간관계로부터 취득가능한 보상 추구의 욕구보다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Novelty를 예측불가능하며, 역동적이며, 잠재적 각성의 적정유입(optimal influx)상태의 제공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여행을 통해 인간은 높은 잠재적 각성을 제공받는다(고 보며, Berlyne²⁵⁾은 개인에게는 이러한 욕구의 최적 수준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즉, 특정 시기의 유기체에는 잠재적 각성의 적정 유입(optimal influx)이 있으며, 그 적정 상태보다 잠재적 각성이 낮을 때 인간은 권태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유기체는 증가된 자극을 추구하게 되고 반면에 높은 잠재적 각성은 하향된 각성 자극의 상태를 찾게된다. 생물심리학적인 접근에서도 인간의 항상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homeostatic theories)이 유기체의 최적균형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유기체는 일정한 내적 균형상태를 유지시키고자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유기체의 현재의 상태가 이러한 내적 균형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유기체는 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우리 신체의 상태가 일정한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긴장이 오래 지속 되면 유기체는 균형상태를 회복시킴으로서 긴장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 생기는 것이다.

Iso-Ahola의 설명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관광이나 여가활동은 적정자극과 불일치의 원칙안에서 일어난다. 인간은 여러 수준의 자극을 추구함에 있어서 과도 자극(지나친 정신적, 육체적 피로)과 과소자극(자극 부족으로 인한 권태) 양쪽 모두를 피하려고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비단 생리적 균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조롭거나 무미건조한 일상생활은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정의 자극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새롭고

23) 이태희(1998), 관광객의 신기성 욕구에 따른 관광 관광목적지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제 22권, 제 1호(통권26)

24) Gitelson, S.J., and J. L. Crompton,(1984). "Insight into the Repeat Vacation Phenomen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II.

25) Berlyne, D. E. (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Y.: McGraw Hill Book Co.

다른 환경을 경험하려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따라서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에 저 자극 상태에 오래 놓이게 되면 권태를 가져오므로 자극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는 환경 즉, 모험과 긴장을 줄 수 있는 번지점프와 같은 위험스러운 활동을 즐기기도 한다. Zukerman²⁶⁾등은 인간과 문화의 다양한 욕구는 환경이 부적당 할 때 동기를 유발하며, 따라서 낮은 각성 수준이나 지나치게 높은 각성 수준은 항상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을 추구하게 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행과 여가행동을 설명한다.

Anderson²⁷⁾은 자기에게 특이하게 보이고 또한 상당한 정도의 모험이 포함되는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동기를 율리시즈동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동인의 자극을 받은 사람은 자기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탐험적 행동이나 신기성 행동 추구를 하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히 일상생활에서 갖는 자극의 수준이 각 개인이 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루함을 느끼게 될 때 새롭고 다른 환경을 경험하려는 욕구가 생겨나고 이런 욕구는 새롭고 다른 장거리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상 성인 남녀로, 2002년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 까지 3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312개의 이용가능한 설문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관광객 신기성욕구수준은 21개 항목, 5점 척도로 구성된 이태희 척도(Lee,1999; Lee and Crompton 199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험추구, 변화추구, 재미추구, 자유추구 등 관광객의 신기성욕구를 구성하는 4가지 차원을 기준변수로 군집분석을 하여 응답자를 신기성욕구 수준에 따라 세부집단으로 분리하였다.

응답자들이 해외여행을 선택하게되는 이유를 0점에서 10점까지 가산점을 주는 척도로 설문을 통해 응답하게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서울 소재 강남 2개, 강북 3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와 교사, 대학생을 선정하였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동기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13개의 중요도항목과 21개의 동기항목을 요인분석하였다. 신기성욕구수준과 해외여행 선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 Chi-Square를 통해 교차분석을 했고, 그 밖의 여행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one-

26) Zuckerman, D.(1985). Learning: Too Many Sibs put our Nation at Risk? Psychology Today.

27) Anderson, J. R. L., (1970). the Ulysses Factor, NY:Harcourt Brace Johanovich, Inc.

way ANOVA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IV. 연구내용 및 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수는 312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표본의 성비율은 여성이 전체의 73.4%인 229, 남성이 23.4%인 74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은 182명(58.3%)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은 144명(46.2%)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 129명(41.3%), 대졸이 109명(34.9%)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의 결과에는 기혼이 263명(84.3%)으로 대다수의 조사대상자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는 2자녀가 198명(63.5%)로 가장 많았고, 3자녀가 51명(16.3%), 1자녀가 23명(7.4%)로 그 뒤를 이었다. 자녀의 학력은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녀의 학력이 중·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이상에 진학중인 자녀도 전체에서 48명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에 있어 결측값은 13~27개 정도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력 변수에서는 결측값이 31~33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여행빈도 및 해외여행 선택시 고려하는 중요도에 관한 기술분석

여행빈도에 관한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2년 사이에 경험한 해외여행의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312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 245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평균은 0.6082, 표준편차는 1.6099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는 최근 2년 동안 해외여행을 경험한 회수가 1회 이상이 아직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2년간 국내여행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279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4.6631, 표준편차는 6.5904로 4~5회 정도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여행하는 평균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285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균이 3.0105, 표준편차가 3.6031로 나타나 연간 3회정도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

가생활에 있어 여행을 선택하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총 294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3.5204, 표준편차는 0.9624로 여행을 선택하는 수준은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에 관해 0~10점까지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질문에는 ‘더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하여’라는 항목이 평균 7.3493, 표준편차 2.7179로 가장 높은 선택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매우 이국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으므로’와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항목이 평균 6.6199, 6.5240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이유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낮은 항목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여’가 평균 1.0541, 표준편차 1.7798로 나타났으며, ‘남들이 다 해외여행을 하니깐’과 ‘쇼핑의 매력 때문에’라는 항목은 낮은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여행빈도 및 해외여행 선택시 중요도

변 수		분석 통계량 (N)	Missing (결측치)	평균 (Mean)	표준 편차 (Std.)
여행빈도	해외연수	245	67	0.6082	1.6099
	국내횟수	279	33	4.6631	6.5904
	평균여행	285	27	3.0105	3.6031
	여행선택	294	18	0.9624	0.9624
중요도	1. 남들이 다 해외여행을 하니깐	263	49	1.5133	2.0599
	2. 매우 이국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으므로	271	41	6.6199	2.9576
	3. 더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하여	272	40	7.3493	2.7179
	4.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	271	41	6.5240	2.8347
	5. 국내여행에서 얻는 만족보다 큰 만족을 주므로	268	44	4.6978	2.6623
	6. 삶의 도전이 되므로	269	43	5.6320	2.8169
	7. 아이들이 원해서	259	53	3.8180	3.0294
	8. 해외에 있는 친구, 형제,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263	49	2.7414	2.9696
	9. 쇼핑의 매력 때문에	261	51	1.6743	2.0469
	10. 쇼핑의 매력 때문에	259	53	1.0541	1.7798
	11. 더 큰 여행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268	44	5.0634	3.1799
	12. 국내에 볼게 없고 외국이 더 유명하므로	260	52	2.3500	2.6386
	13. 기타	139	173	2.4820	3.1905

3. 요인분석

〈표 2〉 여행 동기에 따른 요인분석

요인	측정항목	요인성분				공통성
		1	2	3	4	
F1 (모험 추구형)	동기14	.850	.387	.196	.337	.748
	동기13	.841	.400	.269	.363	.737
	동기8	.800	.371	.208	.198	.649
	동기7	.795	.440	.226	9.552E-02	.649
	동기15	.778	.471	.216	.187	.607
	동기5	.739	.551	.284	.151	.577
	동기21	.712	.510	.403	.424	.603
	동기3	.676	.670	.278	.145	.583
	동기6	.627	.587	.291	6.537E-02	.489
F2 (일상 탈출형)	동기1	.393	.796	.356	4.741E-02	.648
	동기10	.560	.749	.229	.114	.598
	동기9	.546	.745	.177	.151	.599
	동기2	.303	.744	.319	.170	.581
	동기11	.587	.721	.173	.221	.595
	동기4	.428	.697	.381	-4.0E-02	.536
	동기12	.232	.605	.300	.262	.426
F3 (재미 추구형)	동기18	.255	.305	.867	.260	.758
	동기16	.323	.299	.833	.123	.716
	동기20	.218	.460	.747	.228	.607
F4 (자유 추구형)	동기19	.226	.268	.257	.790	.651
	동기17	.303	8.423E-02	.152	.767	.611
	고유치	8.227	1.997	1.627	1.115	
	분산율	39.174	9.510	7.749	5.308	

조사 대상자의 평소 여행을 통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총 21개의 항목을 질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4개로 분류된 요인에는 각각 ‘모험 추구형’, ‘일상 탈출형’, ‘재미 추구형’, ‘자유 추구형’이라는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각각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요인 적재량은 0.6이상으로 각각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모험 추구형’ 요인에는 ‘모험적 여행’, ‘여행 중 과감한 행동’, ‘놀라운 경험’, ‘평소

겁내던 행동', '스릴 있는 놀이', '스릴 있는 활동의 즐거움', '위험한 행동의 시도', '모험적인 행동', '예측할 수 없는 행동' 의 9개 변수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 설명력은 39.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새로운 여행 목적지', '환경의 변화', '일상과 다른 경험', '새로운 것의 발견', '색다른 경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경험',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여행' 과 같은 7개의 요인이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설명력은 9.51%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일상 탈출형'이라는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지루함 달래기 위해', '일상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뜰에 박힌 생활에서의 탈출' 변수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설명력은 7.749%를 나타냈고, 이는 '재미 추구형'이라는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으로는 '사전 여행코스를 계획하지 않음'과 '자세한 휴가 계획을 세우지 않음' 의 두 변수가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308%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자유 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4. 교차분석

① 해외여행 선택 여부와 신기성 욕구 수준

조사대상에게 '국내여행보다 해외여행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와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에 관해 질문한 결과를 교차분석을 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는 결과를 바탕으로 '고관여 집단(High)', '중관여 집단(Medial)', '저관여 집단(Low)'로 구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3〉 해외여행 선택과 신기성 욕구 수준 간의 관계

	해외여행 선택		Total
	예	아니오	
High	65명(72.2%)	25명(27.8%)	90명(100%)
Medial	27명(35.5%)	49명(64.5%)	76명(100%)
Low	77명(74.8%)	26명(25.2%)	103명(100%)
Total	169명(62.8%)	100명(37.2%)	269명(100%)
Pearson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확률
	33.932	2	.000

전체 응답자에서 결측값 43개를 제외한 269명의 응답이 교차분석에 이용되었다. 먼저 신기성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65명(72.2%)가 해외여행을 선택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중간 정도의 관심을 지닌 집단의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27명(35.5%)으로 나타났다. 신기성에 관해 낮은 관심을 나타낸 집단의 경우 해외여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77명(7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Pearson Chi-Square 값은 33.932이고 자유도가 2일 때 점근 유의확률 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나 해외여행 선택 여부와 신기성의 관여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② 해외여행 계획 여부와 신기성 욕구 수준

다음으로 조사대상에게 '1년 안에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와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를 질문한 결과를 교차분석을 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표 4〉 해외여행 계획과 신기성 욕구 수준 간의 관계

	해외여행 계획		Total
	예	아니오	
High	30명(34.5%)	57명(65.5%)	87명(100%)
Medial	16명(21.3%)	59명(78.7%)	75명(100%)
Low	29명(29.3%)	70명(70.7%)	99명(100%)
Total	75명(28.7%)	186명(71.3%)	261명(100%)
Pearson Chi-Square	값	자유도	유의확률
	3.425	2	.180

전체 응답자에서 결측값 51개를 제외한 261명의 응답이 교차분석에 이용되었으며, 고관여 집단의 경우 1년 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30명(34.5%)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의 관여도를 보인 집단은 16명(21.3%), 낮은 관여도를 보인 집단의 경우 29명(29.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외여행 계획이 75명(28.7%)로 나타났다.

Pearson Chi-Square 값은 3.425이고 자유도가 2일 때 점근 유의확률값이 0.180으로 유의수준 0.5보다 크게 나타나 해외여행 계획 여부와 신기성의 관여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분산분석

①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와 여행전반

신기성 욕구 수준에 따른 '여가 생활 중 여행을 선택하는 정도', '최근 2년 사이 해외여행을 한 횟수', '최근 2년 사이 국내여행을 한 횟수', '1년 중 평균 여행하는 횟수'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각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행선택의 경우만이 자유도 2, F값이 11.674일 때,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서 '신기성 욕구 수준의 정도에 따른 여가 생활에서 여행을 선택하는 정도에는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신기성 욕구 수준을 나타내는 '고관여 집단', '중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간에는 '여가 생활 중 여행을 선택하는 정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해외여행 횟수'와 '국내여행 횟수' 그리고 '평균여행 횟수'와 '신기성 욕구 수준'과의 평균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는 모두 유의확률이 0.120, 0.648, 0.68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기성 욕구와 여행 전반의 분산분석

	제곱의 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Sig.
여행선택	20.604 233.859 254.463	2 265 267	10.302 .882	11.674	.000
해외횟수	11.815 612.825 624.640	2 222 224	5.907 2.760	2.140	.120
국내횟수	40.657 11796.426 11837.082	2 252 254	20.328 46.811	.434	.648
평균여행	10.410 3486.894 3497.304	2 257 259	5.205 13.568	.384	.682

②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와 해외여행 선택시 중요도

다음으로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와 '해외여행 선택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에 관해 질문한 13개의 항목과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이는 각 세 집단 '고관여 집단', '중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간에 '해외 여행 선택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간에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다.

<표 6>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3개의 결과 중 10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중요 2는 '매우 이국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음으로'라는 항목으로 F값이 8.450,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중요 3'더 새로운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가 F값 7.530, 유의확률 0.001로, 중요 4'교육적인 효과가 크므로'가 F값 4.434, 유의확률 0.013으로, 중요 5 '국내여행에서 얻는 만족보다 큰 만족을 주므로'가 F값 7.470, 유의확률 0.001로, 중요 6 '삶의 도전이 되므로'가 F값 27.559, 유의확률 0.000으로, 중요 7 '아이들이 원해서'가 F값 5.626, 유의확률 0.004로, 중요 9 '쇼핑의 매력 때문에'가 F값 3.530, 유의확률 0.031로, 중요 11 '더 큰 여행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가 F값 11.439, 유의확률 0.000으로, 중요 12 '국내에 볼게 없고 외국이 더 유명하므로'가 F값 5.998, 유의확률 0.003으로, 중요 13 '기타'가 F값 5.529, 유의확률 0.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 1 '남들이 다 해외여행을 하니깐'은 F값이 2.538, 유의확률 0.081로, 중요 8 '해외에 있는 친구, 형제,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가 F값 2.793, 유의확률 .063으로, 중요 10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가 F값 0.229, 유의확률 0.796으로 나타나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에 따른 집단간에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총 13개의 항목에서 10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와 해외여행 선택시 중요도 분산분석

	제공의 합(SS)	자유도(df)	평균제공(MS)	F.	Sig.
중요1	20.799	2	10.399	2.538	.081
	970.997	237	4.097		
	991.796	239			
중요2	141.808	2	70.904	8.450	.000
	2055.801	245	8.391		
	2197.609	247			
중요3	106.064	2	53.032	7.530	.001
	1732.587	246	7.043		
	1838.651	248			
중요4	68.569	2	34.284	4.434	.013
	1901.945	246	7.731		
	1970.514	248			
중요5	97.875	2	48.938	7.470	.001
	4591.999	243	6.551		
	1689.874	245			
중요6	365.906	2	18.2953	27.559	.000
	1619.794	244	6.639		
	1985.700	246			
중요7	100.033	2	50.016	5.626	.004
	2080.330	234	8.890		
	2180.363	236			
중요8	47.036	2	23.518	2.793	.063
	2003.720	238	8.419		
	2050.755	240			
중요9	28.232	2	14.116	3.530	.031
	943.634	236	3.998		
	971.866	238			
중요10	1.427	2	.713	.229	.796
	730.421	234	3.121		
	731.848	236			
중요11	213.059	2	106.529	11.439	.000
	2262.925	243	9.312		
	2475.984	245			
중요12	82.256	2	41.128	5.998	.003
	1611.463	235	6.857		
	1693.718	237			
중요13	103.331	2	51.666	5.529	.005
	1186.792	127	9.345		
	1290.123	129			

〈표 7〉 요인에 대한 신기성 관여수준에 따른 분산분석

	제곱의합(SS)	df	평균제곱(MS)	F	Sig	
F1	56.939	2 275	0.593	95.992	0.000	
F2	55.018	2 275	0.607	90.617	0.000	
F3	48.835	2 275	0.652	74.617	0.000	
F4	62.986	2 275	0.549	114.688	0.000	
Cluster	수준	N	수준	N	수준	N
	High	92	Medial	80	Low	106

여행시 신기성에 대한 관심도를 묻은 ‘신기성 욕구 수준 정도’ 질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고관여 집단’, 및 ‘중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고관여 집단’에는 총 92명이 속했으며, ‘중관여 집단’에는 80명, ‘저관여 집단’에는 106명이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3개의 군집과 함께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4개의 요인과의 ‘분산분석’을 통하여 각 군집에 따른 요인 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1은 F값이 95.992, 유의확률 0.000을 나타냈으며, 요인 2는 F값이 90.617, 유의확률 0.000, 요인 3은 F값이 74.617, 유의확률 0.000, 요인 4는 F값이 114.688, 유의확률 0.000으로 4개의 요인에 대한 각 군집 집단간의 평균에는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요인에 따른 각 군집 집단간의 평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즉 ‘고관여 집단’과 ‘중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에 따라 ‘모험 추구형’, ‘일상 탈출형’, ‘재미 추구형’, ‘자유 추구형’이라는 4개의 요인에 대한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IV. 결 론

관광동기는 관광행동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많은 변수들 중의 하나이다. 관광은 복잡하고 상징적인 형태의 행위로 이러한 관광행동에는 관광동기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관광동기만으로 관광행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관광동기는 관광행동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관광동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활동과 휴식을 반복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새로움과 변화가 포함되어있다. 새롭고 변화를 주는 자극은 인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유인물이 될 수 있으며, 관광행동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신기성동기가 휴가지 선택이나 관광형태에 관련된 기본적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분야에 거의 주목을 받지못하다가(Farson, 1977) Hirschman(1984)이 보다 새로운 관광지는 신기한 경험에 대한 유사한 희망을 만족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Crompton(1979)도 사회심리학적 동기들 가운데 '지각된 일상의 환경으로부터 탈출'을 첫 번째 동기로 강조하며, Cohen(1972)이 신기성과 낯설음을 관광객 경험의 필수적 요소로 본 것 등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신기성이 중요한 관광 동기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보다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이국적인 환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신기성 욕구와 빠른 시일내의 해외여행 계획 그리고 신기성 욕구수준에 따른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빈도수와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여행 선택과 신기성 욕구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신기성 욕구수준에 따른 여가생활에서 여행을 선택하는 정도변수와 차이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성욕구 수준에 따른 해외여행 선택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개 항목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여행시 신기성 관여수준, 즉 '고관여 집단'과 '중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에 따라 '모험 추구형', '일상 탈출형', '재미 추구형', '자유 추구형'이라는 4개의 요인에 대한신기성 관여수준, 즉 '고관여 집단', '중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 각 군집 집단간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신기성 욕구 수준에 따른 해외여행 횟수나 국내여행 횟수와의 평균차이 분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수준의 신기성욕구를 갖는 사람들이 무엇을 고려하거나 기대하며 해외여행을 결정하는지를 밝힘으로서 관광객 시장 성향의 파악과 마케팅전략들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있으리라 생각한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신기성욕구 수준에 따른 관광객의 해외여행행동과 태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규명할 수 있다면 신기성욕구에 근거한 보다 세분화된 시장과 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ravel motivations appear particularly useful in describing those individuals who visit a specific travel attraction versus those who do not visit the attraction. Novelty seeking is an important motivator for traveling today. In this study four factors and three groups resulting from a cluster analysis were tested in determination for 13 preference and 21 motivators.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rior consideration in oversea travel for people is to expect to contact new culture and exotic environment. In the selection of oversea travel with the level of novelty seeking traits, there is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novelty seeking levels of leisure activities remarkable difference appeared in the selective degree variables and the examination of the gap. In the selection of oversea with the novelty seeking level it displayed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10 items. In a travel in accordance with levels of novelty seeking- which is divided into groups high, medial, and, low level of novelty seeking groups- four elements of their levels demonstrated meaningful differences, such as adventure seeking type, out-of-ordinary life type, fun seeking type and free travel type. In order words, the means of high-concerned group, medial, and low-concerned group showed remarkable differences.

참 고 문 헌

- Anderson, J. R. L., (1970). the Ulysses Factor, NY:Harcourt Brace Johanovich, Inc.
 Bayley, N.(1966). Learning in Adulthood: the Role of Intelligence . In Klausmeier. J.J., and Harrusm C.W.(Edds.). Analysis of Concept Learning.NY: Academic Press.
 Bello, D. C. & M. J. Ezzell(1985). the Role of Novelty in the Pleasure Travel Experience" the

Journal of Travel Research, Summer.

Berlyne, D. E. (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 NY.: McGraw Hill Book Co.

Cooper, P. D. and J.R. Thompson, "Additional Evidence on the Limited Size of Evoked and Inept Sets of Travel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7.(Winter, 1979).

Crompton, J. L. and Gitelson, R. J.(1984). "Insights into the Repeat Vacation Phenomen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 II.

Dann, G.(1977)."Anomie, Ego-Enhancement &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4.H

Deci, E. L.(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Press.

Fantz, R.L..(1961). the Origin of Form Perception, Scientific American.

Fodness, D.(1994).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551-581.

Gitelson, S.J., and J. L. Crompton,(1984). "Insight into the Repeat Vacation Phenomen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II.

Hirschman, E. C.,(1980). "Innovativeness, Novelty Seeking and Consumer Crea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 7.

Crompton, J. L. and

Iso-Ahola, S. E.(1982). Towards a Social Psychology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

Iso-Ahola, S. E.(1984).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Leisure and Resultant Implication for Leisure Counseling, "Leisure Counseling: Concepts and Application, E. T. Dowd,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84).

Jensen, A. R.(1980). Bias in Mental Testing. NY: Free Press.

Kalat, J, W.(1999). Biological Psychology. N.C.S. Raleigh.

L. S. McKay,(1977). Motives of Visitors Attending Festival Events. Annal of Tourism Research 24

Maslow, A. H.(1970). Motivation & Personality, NY.Harper & Row.

Mayo, E. D. & L. Jarvis(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Travel, Boston: CBI Publishing Co. Inc.

Murray, H. A.(1938). Exploration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annally, J. C. and L. C. Leonard(1973). Exploratory Behavior & Human Development.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 Behavior, 8.

Pearce, D. G. (1987).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NY: John Wiley & Sons, Inc. Plog(1972)."Why Destination Areas Rise and Fall in Popularity, a Paper Presented to the

Southern California Chapter of the Travel Research

Prigge, William R.(1970). Environment and the Accomodation Industry, The Travel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Conference, Salt Lake City: Travel Research Association.

Ryan, R. M.(1977).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53(1).

Smith, V.(1999). "Woman the Taste-makers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6(2)

Uysal M. & Hagman(1993). Motivation of pleasure travel and tourism. In M. Khan, Olsen, M. & T. Var, Encyclopedia of Hospitality and Tourism(pp. 798-810). N.Y.:VNR.

Wright, P.(1996). North American ecotourism markets: motivations, prefererces, and destination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2): 16-21.

Zuckerman, D.(1985). Learning: Too Many Sibs put our Nation at Risk? Psychology Today.

손대현(1983),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마케팅에 관한 실증적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엄서호(1991), “관광여행 목적지 선택과정에 있어서 지각 억제인자와 지각 촉진인자의 역할”, 여가생활연구 제 3호. 경기대부설 여가산업연구소.

오상훈(1992), “관광자의 성격과 관광목적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세진역(1995), 광고심리의 분석, 미진사

오숙환(1988), 내국인의 관광목적지 선택행동에 있어서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진길(1988), 국립공원 관광지에 대한 인지와 선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애주(1988), 관광지 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관광객의 지각 및 선호도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태희(1998), 관광객의 신기성 욕구에 따른 관광 관광목적지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제 22, 제 1호(통권26)

이혜영(2001), 문화관광 축제의 외국인 관광객 만족에 관한 연구-이천 도자기 축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정순옥(1994), 관광자원의 매력 측정에 관한 연구-롯데월드의 신기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석빈, 정동창(1998),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의 여행계획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제21권 통권 25호.